

Session 9B Daniel: Six Examples of the Forerunner Lifestyle (Dan. 1-6)

9B 과 다니엘: 선두주자 생활 방식의 여섯가지 예 (단 1-6 장)

I. OVERVIEW OF THE BOOK OF DANIEL

다니엘서의 개요

The first section is historical (Dan. 1-6): Highlights six episodes in Daniel’s life
첫 번째 부분은 역사적이다 (단 1-6 장): 다니엘의 생애에 있었던 6 가지 사건을 조명함

Daniel 1: Dedication of youth, refuses to compromise, embraces a fasted lifestyle in Babylon

Daniel 2: Nebuchadnezzar’s first dream – receiving the word of Lord in crisis

Daniel 3: Being a faithful witness (Rev. 13) - deliverance from the fiery furnace

Daniel 4: Nebuchadnezzar’s second dream – calling leaders to righteousness

Daniel 5: Belshazzar’s feast – the sudden downfall of governments (fall of Babylon)

Daniel 6: Daniel in the lion’s den – supernatural deliverance of believers in persecution

다니엘 1 장: 젊은 시절의 헌신, 타협을 거절함, 바벨론에서 금식하는 삶을 살아감

다니엘 2 장: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 –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임

다니엘 3 장: 신실한 증인 되기 (계 13 장) - 풀무불에서 구원 받음

다니엘 4 장: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 지도자들을 의로운 길에 서도록 부르심

다니엘 5 장: 벨사살의 잔치 – 강력한 국가들의 갑작스런 몰락 (바벨론의 몰락)

다니엘 6 장: 사자굴의 다니엘 -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의 초자연적인 구원

II. THE FIRST SIX CHAPTERS OF DANIEL: EXAMPLES OF DEDICATION (DAN. 1-6)

다니엘서의 첫 6 장: 헌신의 예 (단 1-6 장)

A. The first section of the book of Daniel is historical (chapters 1-6). In each of the first six chapters we read about episodes in Daniel’s life that give us a picture of the values and lifestyle that the Lord is calling forerunners to embrace. These include wholehearted dedication, endurance in persecution by taking a stand for Jesus and His Word, and boldness to speak prophetically, even to secular authorities, as Daniel did when he interpreted the dreams of King Nebuchadnezzar.

다니엘서의 첫 번째 부분은 역사적인이다 (1-6 장). 첫 6 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읽을 수 있고, 이는 주님이 선두주자들에게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신 가치와 삶의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에는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편에 섬으로 인한 핍박을 견딤,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그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권세 앞일지라도 예언적으로 말하는 담대함의 부분들이 있다.

B. The Lord is raising up forerunners who will give others understanding of God’s purpose and plan to expose the deceptive strategies of the enemy. Understanding the truth is essential in equipping God’s people, so that they are not deceived, confused, offended, fearful, or seduced by sin in the midst of the unique dynamics that will occur in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Rather, the Lord’s people are to walk in clarity, peace, gratitude, confidence, and holy love.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이해를 전해 줌으로 대적의 기만적인 계락을 드러낼 선두주자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데, 이는 주님이 재림하실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상황 속에서 속임과 혼동, 실족하며 두려워하거나 죄의 유혹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히려 주님의 백성들은 확신과 평안과, 감사와 자신감, 거룩한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III. DANIEL 1: EMBRACING A FASTED LIFESTYLE – DANIEL’S YOUTH

다니엘 1 장: 금식의 삶을 받아들임 – 다니엘의 청년 시절

- A. In Daniel’s early days in Babylon, while still in their teen years, he and his friends refused to compromise. They set their heart to not defile themselves (Dan. 1:8).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가 아직 10 대일 때, 그와 그의 친구들은 타협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단 1:8).

⁸***But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that he would not defile himself with the portion of the king’s delicacies, nor with the wine which he drank... (Dan. 1:8)***

⁸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 하리라 하고 ... (단 1:8)

- B. They were wholehearted in their dedication to the Lord all their days, starting in their youth. They embraced a fasted lifestyle in the face of certain pleasures that were available in Babylon, and they refused to compromise by yielding to the ungodly culture that they lived in. Overcoming peer pressure to conform is a challenge in every generation.

그들은 청년 때부터 자신들의 모든 날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전심으로 드렸다. 그들은 바벨론에 살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의 즐거움들 앞에서 금식의 삶을 선택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경건치 않은 문화에 젖어들게 됨으로 타협하는 것을 거절했다. 순응을 요하는 또래 집단의 압박을 이기는 것은 모든 세대에서 도전이 되는 일이다.

- C. Biblical fasting is abstaining from food for spiritual reasons. It is not merely a diet. It involves reducing the types and amount of food that we eat and increasing our time with the Lord.

성경적인 금식은 영적인 이유로 음식을 멀리 하는 것이다. 금식은 단지 다이어트가 아니다. 이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줄이는 것이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 D. By fasting food, we position ourselves before the Lord ***so that our heart may be tenderized and become more sensitive***; thus, we are able to receive more from Him.

금식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두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욱 민감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더욱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

- E. In the fasted lifestyle, we embrace a spirit of heightened consecration in order to position ourselves to receive more from the Lord. The fasted lifestyle includes restraining from legitimate and permissible pleasures for the purpose of a more focused dedication to the Lord. It includes fasting food as well as fasting related to media, entertainment, and other legitimate pleasures.

금식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성별됨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더욱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게 된다. 금식의 삶은 우리가 주님께 더욱 집중된 헌신을 드리기를 위해 정당하고 허용된 즐거움마저도 멀리하는 것이다. 이는 음식을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오락, 그리고 다른 정당한 즐거움을 금하는 것이다.

- F. Daniel set his heart to live a fasted lifestyle, even refusing permissible things in his dedication to God. He and his three friends *ate vegetables and drank water*. The word that is translated *vegetables* in the NKJV is translated as *pulse* in the KJV. It comes from the Hebrew *zeroa*, which means “that which grows from seed.” Thus, *zeroa* includes vegetables, fruits, whole grains, legumes (peas or beans), nuts, seeds, tofu, and herbs.

다니엘은 금식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가운데, 허용된 즐거움마저도 거부했다. 그와 그의 세 친구들은 야채를 먹고 물을 마셨다. 개역 개정에서 채소(채식)로 번역된 단어는 한글킹제임스에서 콩죽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는 히브리어 제로아(zērōa)에서 온 것이며, 이는 “씨앗에서 자라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소와 과일들, 통곡식이나 콩과 식물들(완두콩이나 콩류), 견과류, 씨앗, 두부, 허브(약초) 등을 포함한다.

¹²“Test your servants for ten days, and let them give us vegetables to eat and water to drink. (Dan. 1:12)

¹² 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단 1:12)

- G. Daniel’s lifestyle is a picture of the unusual dedication that God will call people to in this hour, even as the values and doctrine associated with the harlot Babylon (Rev. 17-18) are emerging in the midst of this pleasure-seeking generation. The resolve to live a fasted lifestyle positions us to grow faster and deeper in God and to receive more as the darkest hour of history approaches.

다니엘의 삶은 음녀 바벨론(계 17-18 장)과 연관된 가치와 교리가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시는 독특한 헌신의 모델이다. 금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함으로써 인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더욱 빠르고 깊게 성장하며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 H. Daniel fasted to position himself to encounter God more by continuing to pray (9:3), humble himself (10:12), renounce compromise (9:20), seek for greater insight into God’s love (9:23; 10:11, 19) and His end-time plan (7:16; 8:15-19; 9:2-3, 22-23; 10:1, 11-14; 11:33, 35; 12:4, 9-10), and to pray for a greater breakthrough in God’s purposes, including for Jerusalem (9:1-3).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욱 대면하기 위해 금식을 해나갔으며,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9:3), 자신을 겸손히 하고(10:12), 타협하지 않고(9:20), 하나님의 사랑(9:23; 10:11, 19)과 그분의 마지막 때의 계획(7:16; 8:15-19; 9:2-3, 22-23; 10:1, 11-14; 11:33, 35; 12:4, 9-10)에 관한 더 큰 통찰력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포함한(9:1-3) 하나님의 목적의 더 큰 돌파를 위해 기도했다.

- I. **Practical:** God calls some to a fasted lifestyle that affects how they approach food and pleasure.

적용: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금식의 생활 방식으로 부르심으로 그들이 음식과 즐거움에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신다.

IV. DANIEL 2: RECEIVING THE WORD OF THE LORD IN CRISIS – THE KING’S STATUE

다니엘 2 장: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임 – 왕의 신상

- A. As in Daniel’s day, God still desires to establish young prophetic voices to speak even to secular leaders. In Nebuchadnezzar’s second year, while Daniel was still a teen, the king had a prophetic dream that no one could interpret. Daniel and his friends sought the Lord and received the answer.

다니엘의 때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세속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젊은 예언적인 목소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다니엘이 고작 10 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 년이 된 때에, 이 왕은 예언적인 꿈을 꿴고 어느 누구도 이를 해석할 수 없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주님께 구했고 응답을 받았다.

¹⁷Daniel went to his house, and made the decision known to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his companions, ¹⁸that they might seek mercies from the God of heaven concerning this secret...¹⁹The

secret was revealed to Daniel in a night vision. (Dan. 2:17-19)

¹⁷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¹⁸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¹⁹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단 2:17-19)

- B. The crisis of that hour was that King Nebuchadnezzar *demanded* the interpretation of the dream from his leaders under the threat of death. The situation was very difficult, because the king refused to disclose the dream, so that no man could interpret it without God's help (2:4-11).

이 때의 위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지도자들에게 이 꿈의 해석을 **요구했고**, 이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은 매우 어려웠는데, 이는 왕이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를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4-11).

- C. Only someone with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someone who was close to His heart and attuned to His Spirit, could do what Nebuchadnezzar was asking.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과 가깝고 그의 성령에 마음을 맞추고 있는 자만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청하는 바를 행할 수 있었다.

¹⁴*The secret of the LORD is with those who **fear Him**, and He will show them His covenant. (Ps. 25:14)*

¹⁴여호와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시 25:14)

- D. Daniel and his godly friends sought the Lord, and He gave Daniel the interpretation (2:17-19).

다니엘과 그의 경건한 친구들은 주님께 구했고, 주님은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주셨다 (2:17-19)

¹⁷*Daniel went to his house, and made the decision known to Hananiah, Mishael, and Azariah, his companions, ¹⁸that **they might seek mercies from the God of heaven concerning this secret...*** ¹⁹*The secret was revealed to Daniel in a night vision. (Dan. 2:17-19)*

¹⁷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¹⁸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¹⁹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단 2:17-19)

- E. We see the importance of godly friendships among those who seek the Lord together for a prophetic breakthrough. Daniel didn't only pray by himself. He called together his fellowship group, his band of prophetic brothers, and they sought the Lord together (2:17-18).

우리는 예언적 돌파를 위해 주님께 함께 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경건한 교제 관계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다니엘은 단지 홀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교제 그룹, 자신의 예언적 형제들의 그룹을 불렀고, 그들은 함께 주님을 구했다 (2:17-18).

- F. In a time of crisis, Daniel received the word of the Lord to speak to the highest authorities of his day. Today, the Lord desires to use young prophetic voices to reveal the secrets of the heart and to answer to crisis situations of their day. A similar thing happened with Joseph (Gen. 40-41).

이 위기의 때에, 다니엘은 자신의 시대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이에게 전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다. 오늘날 주님은 그분 마음의 비밀을 밝히고 그들의 시대의 위기 상황에 대해 답을 줄 젊은 예언적인 목소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요셉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창 40-41 장).

²⁵*The **secrets of his heart are revealed**; and so, falling down on his face, he [an unbeliever] will worship God and report that God is truly among you. (1 Cor. 14:25)*

²⁵**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믿지 않는 자]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라** (고전 14:25)

- G. There are some life and death situations that can only be answered by receiving the prophetic word of the Lord. In our day, the crisis may sometimes be economic, where situations arise that will result in many losing their jobs unless someone receives a word from God to answer the crisis. Or it may be a social crisis with tensions in the community, or riots in the streets that can only be answered by someone who receives a word from God.

오직 주님의 예언적 말씀을 받는 것을 통해 응답될 수 있는 어떤 삶과 죽음의 상황들이 존재한다. 우리 시대에 이 재난은 때로 경제적인 것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답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를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또는 이는 공동체 안의 긴장감으로 인간 사회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거리의 난동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 H. At that time, Daniel and his friends were not leaders in the king's court. They were merely students being trained in a school so that one day they could be on the king's staff. Young Daniel spoke to the leaders over him with confidence and wisdom (2:14), asking for time to seek God for His answer to the crisis. In this case, it was to receive interpretation of the king's dream.

이때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궁정에 속한 지도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언젠가 왕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에 불과했다. 젊은 다니엘은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시간을 달라고 지혜와 확신으로 말했다 (2:14). 이 경우, 이는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받는 것이었다.

- I. When Daniel went before the king, we see that he used two phrases to define the God he served: he spoke of “the God in heaven” and “the Revealer of mysteries” (2:28). In going before the king, Daniel is not merely trying to save his own life, but is aware of his role as the ambassador of the God of heaven. In this case, King Nebuchadnezzar's dream actually revealed key facets of God's plan for what would happen with his nation and other nations coming after him.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정의하기 위해 두 구절을 사용한 것을 본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 (2:28)에 대해 말했다.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아가서, 단지 자신의 생명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경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실제로 그의 나라와 그 뒤에 일어날 나라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 부분들을 밝혔다.

- J. After Daniel interpreted Nebuchadnezzar's dream, the king fell prostrate before Daniel as an act of submission, reverence, and adoration to Daniel's God. Jesus told the church of Philadelphia that their enemies would worship God before their feet and acknowledge that God is with them (Rev. 3:9). In the end-time Church, God will raise up prophetic young voices to stand before even secular leaders to communicate His prophetic message to them. They will include young men and women like Daniel, who have a history of seeking God for a spirit of understanding.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왕은 다니엘 앞에 절함으로 다니엘의 하나님께 순복하고 공경하며 경배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들의 대적들이 그들 발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심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계 3:9). 마지막 때 교회에, 하나님은 세속적인 리더들 앞에서도 서서 그분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젊은 예언적 목소리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들은 다니엘과 같이 깨달음의 영을 하나님께 간구해온 젊은 남녀들일 것일 것이다.

⁹I will make those of the synagogue of Satan,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lie— I will make them come and worship before your feet, and to know that I have loved you. (Rev. 3:9)

⁹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뿔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계 3:9)

- K. **Practical:** We are to seek the Lord for His answer in times of crisis and then be being willing to speak what the Lord says to secular leaders.

적용: 우리는 위기의 때에 주님의 응답을 위해 주님께 구해야 하고, 주님께서 세속적인 리더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꺼이 말해야 한다.

V. DANIEL 3: BEING FAITHFUL WITNESSES – FACING A FIERY FURNACE

다니엘 3 장: 충성된 증인이 됨 – 맹렬한 풀무불 앞에서

- A. We see the dedication of young people who were tested by fire when they refused to compromise. Daniel’s three friends refused to worship before Nebuchadnezzar’s statue, even when threatened with death. God delivered them from the fiery furnace.
우리는 여기서 타협을 거절함으로 불로 시험 당하는 젊은이들의 헌신을 볼 수 있다. 다니엘의 3 친구들은 죽음의 협박에도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서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로부터 건지셨다.
- B. These men were no longer teens. They now held places of authority in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y took a stand for Jesus in the marketplace knowing it might cost them their jobs, their careers, or even their lives. God supernaturally intervened on their behalf, delivering them from the crisis—a fiery furnace. You may never face a literal furnace with fire, but you may face a fiery furnace of very difficult situations caused by taking a stand as a faithful witness for Jesus.
이들은 더 이상 10 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정부에서 권위의 위치에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기업 환경에서 자신들의 직장과 경력,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앞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힌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심으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셨다. 당신은 실질적인 풀무 불을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한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고수함으로 생길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풀무 불 앞에 놓일 수도 있다.
- C. The Lord is calling His people to be faithful witnesses, with great allegiance to Jesus’ heart for the Church, Israel, and the nations. Our witness for truth must be clear, bold, fearless, and tender. God is raising up those who will be faithful witnesses to the truth (Rev. 12:11, 17; 19:10; 20:4).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충성된 증인들로 부르고 계시며, 교회와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에 큰 충성됨을 가진 자들로 부르고 계신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증거는 분명하고 담대하며, 두려움이 없으며 온유해야 한다. 하나님은 진리의 충성된 증인이 될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 (계 12:11, 17; 19:10; 20:4).

³And I will give power to my two witnesses, and they will prophesy... (Rev. 11:3)

³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예언하리라 (계 11:3)

¹¹“They overcame him [Satan]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and they did not love their lives to the death.”... ¹⁷The dragon...went to make war with... [those] wh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ave the testimony of Jesus. (Rev. 12:11, 17)

¹¹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사단]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¹⁷ 용이...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계 12:11-17)

- D. Where was Daniel? Did he bow down? In all likelihood, Daniel was in another major city on official business. Daniel had been promoted to the position of chief administrator for the king (2:49). Daniel was familiar enough with Susa, the capital of the Elamites, that he could identify it in his vision a few years later (8:2). This suggests that he had spent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there. Presumably he was in Susa or some other foreign capital when this event occurred.
 이 때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신상 앞에 절을 했는가? 아마도 다니엘은 업무로 인해 다른 대도시에서 있었을 것이다. 다니엘은 왕을 위한 최고 관리자의 위치로 승진된 상태였다 (2:49). 다니엘은 엘람 지방의 수도인 수산 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몇 년 후에 그는 환상에서 그곳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8:2). 이는 그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보여준다. 짐작컨대 그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수산 성 혹은 다른 외국의 수도에 있었을 것이다.
- E. There were possibly thousands of people on the plain of Dura worshiping the image (2:2-3). The king would not have known tha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had not bowed down, if it were not for jealous men under their authority who told the king to undermine their positions. Though God promotes His people, there will be those who seek to cast down the Lord's servants.
 아마 두라 평지에는 그 신상에 경배하는 수 천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3:2-3). 만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질투한, 그들의 권위 하에 있는 자들이 그들을 강등시키기 위해 왕께 고하지만 않았다면, 왕은 그들이 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높이시지만, 주님의 종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 F. The three men declared that while God was able to deliver them, yet even if He chose not to deliver them, they would stay loyal and faithful to Him. Unlike the three who were delivered from the fiery furnace, many end-time believers will die for standing for Jesus (Rev. 6:9-11).
 이 세 3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만약 그리 아니하실 지라도 그분께 충성되며 신실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맹렬히 타는 풀무로부터 구원받은 이 3 사람과는 다르게, 마지막 때의 많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계 6:9-11).
17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from your hand, O king. *18* But if not, let it be known to you, O king, that we do not serve your gods, nor will we worship the gold image which you have set up." (Dan. 3:17-18)
17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17-18)
- G. This story depicts the intensity of resolution that will be seen in the end-time Church when the Antichrist will demand the nations to worship his image or be killed (Rev. 13:12-18).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열방에게 자신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하며 생명의 위협을 가할 때 교회가 보여줄 결심의 강도를 보여준다 (계 13:12-18).
15 ...cause as many as would not worship the image of the beast to be killed. *16* He causes all ...to receive a mark... *17* no one may buy or sell except one who has the mark... (Rev. 13:15-17)
15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계 13:15-17)
- H. **Practical:** To be willing to stand for Jesus in society and the workplace before secular authorities.
적용: 사회와 일터안의 세속적인 권위 앞에서 기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VI. DANIEL 4: CALLING LEADERS TO RIGHTEOUSNESS – THE HUMBLING KING

다니엘 4 장: 지도자들을 의로 부르심 – 낮춰진 왕

- A. We see the sudden humbling of powerful world leaders related to prophetic words given directly to them. This fourth episode of Daniel’s life occurred about 25 years after his friends were delivered from the fiery furnace (Dan. 3). Daniel was now in his forties.
우리는 여기서 강력한 세계 지도자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예언의 말씀과 관련되어 갑자기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다니엘의 삶의 이 4 번째 사건은 그의 친구들이 맹렬한 풀무불로부터 구원 받은지 (단 3) 약 25 년 후에 일어났다. 다니엘은 이제 40 대가 되었다.
- B. Daniel interpreted the king’s dream and prophesied that the king would endure seven years of insanity, leading him to acknowledge the one true God before being returned to kingly authority.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했고, 또한 왕이 정신 이상으로 7 년을 지내야 하며, 이로 인해 그가 왕위로 돌아오기 전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 C. Once again, none of the wise men serving other gods was able to interpret this dream. The king called Daniel “one in whom is the spirit of the holy gods” (4:8-9).
다시 한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떤 지혜자도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 왕은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인 다니엘을 불렀다 (4:8-9).
- D. God will humble the world’s most powerful leaders in the end times so that they might acknowledge His sovereignty over them and establish His purpose in their sphere of authority.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을 겸손하게 하실 것인데, 이는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위의 영역 안에 그분의 목적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 E. Daniel recognized that the dream was a call to repent and a warning of judgment. Giving a word like this to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nation has consequences. Daniel believed that the prophecy was an opportunity for the king to avert trouble through repentance (4:27).
다니엘은 그 꿈이 회개로의 부르심이고 심판의 경고였음을 인식했다. 한 나라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 것으로 인한 결과들이 생기게 된다. 다니엘은 그 예언이 회개를 통해 환난을 피하도록 왕에게 주어진 기회였다고 믿었다 (4:27).

25They shall drive you from men, your dwelling shall be with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y shall make you eat grass like oxen...and seven times [years] shall pass over you, till you know that the Most High rules in the kingdom of men...²⁷Therefore, O king, let my advice be acceptable to you; break off your sins by being righteous, and your iniquities by showing mercy to the poor. Perhaps there may be a lengthening of your prosperity.” (Dan. 4:25-27)

²⁵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이와 같이 일곱 때[해]를 지낼 것이라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²⁷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단 4:25-27)

- F. Daniel warned the king that he must break off from his sins or he would be humbled.
다니엘은 왕에게 죄의 행위를 멈추어야 함과, 그렇지 않을경우 낮추어 질 것임을 경고했다.

- G. Nebuchadnezzar did not repent. About a year later he surveyed his accomplishment and concluded that his success was all due to his own great power. This resulted in a season of seven years in which God humbled him. In His mercy, God had given him a full year to repent (4:29).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았다. 약 1 년 후 그는 자신의 성취를 살펴보고 그의 성공이 모두 자신의 큰 힘 때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겸손하게 하는 7 년의 시기가 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분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1 년을 허락하셨다 (4:29).
²¹I gave her [Jezebel] time to repent of her sexual immorality, and she did not repent. ²²Indeed I will cast her into a sickbed, and those who commit adultery with her into great tribulation, unless they repent of their deeds. (Rev. 2:21-22)
²¹ 내가 그에게 [이세벨]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²²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계 2:21-22)
- H. After seven years of insanity and the loss of his prestige, Nebuchadnezzar finally repented.
느부갓네살은 정신이 나가고 자신의 위신을 잃어버린 7 년 후에 마침내 회개했다.
- I. The Lord will raise up forerunners, who at times will call those in leadership over the spheres of society to repent before He humbles them by His judgments and disciplines.
주님은 때때로 선두주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심판과 훈계를 통해 사회의 영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전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하게 하실 것이다.
- J. In the end times God will use his servants to prophesy to various leaders concerning His ways. He will intervene suddenly in their lives and humble them. It will require courage on the part of the Lord's messengers to call leaders to repentance.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다양한 지도자들에게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 예언하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삶에 갑자기 개입하셔서 그들을 겸손케 하실 것이다.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메신저들에게 용기가 요구될 것이다.
- K. Jesus will humble the leaders of the nations who do not repent (Isa. 2:11-18; 10:12; 25:6).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겸손케 하실 것이다 (사 2:11-18; 10:12; 25:6).
- L. Practical: To be willing to speak to secular leaders about personal issues in their life.
적용: 세속적인 지도자들 삶의 개인적 문제들에 대해서 기꺼이 그들에게 말할 것.

VII. DANIEL 5: THE SUDDEN FALL OF GOVERNMENTS – BELSHAZZAR'S FEAST

다니엘 5 장: 강력한 국가들의 갑작스런 몰락 – 벨사살의 만찬

- A. This fifth event occurred while Daniel was in his early eighties. It began with a supernatural event during King Belshazzar's royal feast, in which he was desecrating the vessels once used in Solomon's temple.
이 다섯 번째 사건은 다니엘이 80 대 초반이었을 때 일어났다. 그것은 벨사살 왕의 만찬 동안 그가 솔로몬의 성전에 사용되었던 기구들을 더럽히는 가운데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 B. When Babylon was the most powerful nation on the earth, Daniel prophesied that it would fall suddenly. He warned the national leaders of Babylon that their nation was finished, and that it would soon be divided and given to the Persians.
 다니엘은 바벨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을 때, 그 나라가 갑자기 무너질 것을 예언했다. 그는 바벨론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끝났고, 곧 나뉘어져서 바사 (페르시아)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²³And You have lifted yourself up against the Lord...²⁶God has numbered your kingdom, and finished it...²⁸Your kingdom has been divided, and given to the Medes and Persians. (Dan. 5:23-28)
²³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²⁶...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²⁸...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단 5:23-28)
- C. God released sudden judgment on the king and his nation by writing supernaturally on the palace wall. That very night, in October 539 BC, Babylon fell to Persia, and Belshazzar died.
 하나님은 왕궁 벽 위에 초자연적으로 글을 쓰심으로 그 왕과 그의 나라 위에 갑자기 심판을 부으셨다. 주전 539년 10월 그 깊은 밤에, 바벨론은 바사에게 멸망 당했고 벨사살은 죽임 당했다.
- D. Not only were Belshazzar and his nobles profaning the vessels stolen from the temple by using them in a common setting, they were at the same time declaring the superiority of the gods they served (5:4). Yet it was not the strength of their gods that had delivered Jerusalem into their hands; it was God judging His people by giving them into the hands of the Babylonians.
 벨사살과 그의 귀족들은 성전에서 훔친 기구들을 일상 생활에 사용함으로 신성 모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우월함을 선포하고 있었다 (5:4). 그러나 예루살렘이 그들의 손에 붙인바 되었던 것은 그들의 신들의 힘이 아니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인들의 손에 내어 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다.
- E. Now the Lord will show them that He is the One who “sets up kings and deposes them” (Dan. 2:21) and who “does what he pleases with the people of the earth” (4:35) even as Nebuchadnezzar had experienced.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2:21)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4:35) 보여주실 것이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 F. When Daniel came before Belshazzar, Daniel did not merely interpret the writing on the wall. He gave the king a message about how God had humbled Nebuchadnezzar, and reminded Belshazzar that he knew the whole story. So he set the judgment in the context of the mercy of God, who had given Belshazzar more than enough time and information before judging him (5:22-23).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왔을 때, 그는 단지 벽에 쓰인 것을 해석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왕을 어떻게 겸손케 하셨는지, 그리고 벨사살이 이 모든 이야기를 알았음을 상기시켜 주는 메시지를 왕에게 전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벨사살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그에게 심판 전에 미리 정보를 주신 그분의 자비하심이라는 상황 가운데 심판을 말하였다 (5:22-23).
²²“But you his son, Belshazzar, have not humbled your heart, although you knew all this.” (Dan. 5:22)
²²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단 5:22)

- G. This historical event of the sudden defeat of an evil king and his empire foreshadows the sudden fall of the Harlot Babylon (Rev. 18:9-10).
 악한 왕과 그의 제국의 갑작스런 패배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음녀 바벨론의 갑작스런 멸망을 예표한다 (계 18:9-10).

⁹“*The kings of the earth who committed fornication and lived luxuriously with her will weep and lament for her, when they see the smoke of her burning, ¹⁰standing at a distance for fear of her torment, saying, ‘Alas, alas, that great city Babylon, that mighty city! For in one hour your judgment has come.’*” (Rev. 18:9-10)

⁹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¹⁰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 18:9-10)

- H. Just as Belshazzar was at the height of luxury and feasting, and then fell in one hour (5:1-4), even so the harlot at the height of her luxury, ease, and power will fall suddenly (Rev. 18:1-18).
 벨사살이 사치와 축제를 한참 벌이다가 순식간에 망한 것처럼 (5:1-4), 음녀도 사치와 안일함과 힘이 절정일 때에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계 18:1-18).

¹⁷“*In one hour such great riches came to nothing...¹⁹They threw dust on their heads and cried out...saying, ‘Alas, alas, that great city...in one hour she is made desolate.’*” (Rev. 18:17-19)

¹⁷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¹⁹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 18:17-19)

- I. **Practical:** To be willing to speak to secular leaders about national issues.
적용: 국가적 문제에 대해 세속적인 지도자들에게 기꺼이 말할 것.

VIII. DANIEL 6: PERSECUTION AND DELIVERANCE – FACING A LION’S DEN

다니엘 6 장: 핍박과 구원 – 사자 굴을 직면함

- A. Daniel 6 demonstrates costly obedience in the face of persecution and the threat of prison and death. This extraordinary obedience and faith was followed by supernatural deliverance. Daniel was delivered from the lion’s den, from the very mouths of hungry lions.
 다니엘서 6 장은 핍박과 감옥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큰 대가를 치르는 순종에 대해 보여준다. 이 탁월한 순종과 믿음 뒤에는 초자연적인 구원이 따랐다. 다니엘은 사자의 굴과 굶주린 사자들의 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 B. At this point Daniel was in his eighties, shortly after the fall of Belshazzar and during the reign of Darius (who was under King Cyrus). Darius had made Daniel one of his three primary leaders over the kingdom, inciting the jealousy of other Persian leaders. Thus they proposed a new law that the king authorized, which resulted in Daniel being forbidden to pray to the God of Israel.
 이 때 다니엘은 80 대였으며, 이는 벨사살의 멸망 직후와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의 아래 있던)의 통치 기간이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제국을 돌아보는 세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세웠으며, 이는 다른 바사 (페르시아) 지도자들의 질투심을 샀다. 이리하여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새로운 법을 제안했고, 이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었다.

- C. They planned a way to trap Daniel, knowing that he would never draw back on his personal devotion and commitment to prayer. Daniel stayed true to his prayer life, knowing that the new law was a scheme established because of their jealousy. Daniel's consecration in this situation expressed his lifelong commitment to prayer (6:10).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을 결코 그만두지 않을 것을 알고 다니엘을 궁지에 몰 방법을 계획했다. 다니엘은 이 새 법안이 그들의 질투심으로 인해 세워진 책략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기도의 삶에 신실하게 머물렀다.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의 자신을 성별한 것은 그가 삶 전체에 걸쳐 기도에 헌신했음을 알려준다 (6:10).

¹⁰Now when Daniel knew that the writing was signed, he went home. And in his upper room, with his windows open toward Jerusalem, he knelt down on his knees three times that day, and prayed and gave thanks before his God, as was his custom since early days. (Dan. 6:10)

¹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 6:10)

- D. He had always set his heart to obey the Lord. This was once again put to the test. He continued steadfastly in his usual daily habit of prayer, resulting in his being thrown into a den of lions. Yet the Lord supernaturally delivered him from persecution. There was a sudden reversal of fates as Daniel's oppressors were thrown into the very lion's den that they had prepared for Daniel.

그는 항상 주님께 순종하기로 자신의 마음을 정했다. 다시 한번 시험이 다가왔다. 그는 변함없이 그의 평상시 매일의 기도의 습관을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사자 굴에 던지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핏박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구원하셨다. 다니엘을 억압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위해 준비되었던 사자 굴에 던져짐으로 갑작스런 운명의 반전이 있었다.

- E. The result of Daniel's testimony and God's deliverance was that the name of the Lord was exalted in the nations by King Darius (6:25-27). God's purpose is always to exalt His name.

다니엘의 믿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결과로, 주님의 이름이 다리오 왕에 의해 그 나라에서 높아지게 되었다 (6:25-27).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 F. King David warned rulers and lawmakers in the end times not to make decrees against God or refuse to pay homage to His king (Ps. 2:10-12). Believers in the end times will face official decrees and laws intended to prevent them from worshiping the Lord.

다윗 왕은 마지막 때의 통치자들과 입법자들이 하나님에 대적하는 법령을 만들지 말 것, 혹은 그분의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시 2:10-12).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법령과 법들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 G. Like Daniel, we will need to make a decision. Should we obey man rather than God, when man's law is clearly against the commands of the Lord? But more than that, will we take a stand for our faith? Daniel could have prayed in secret. He could have lain on his bed at night and prayed with his eyes closed, and no one would have accused him of breaking the law. Instead, he followed his usual practice, praying at his window, facing Jerusalem, with his arms held high to the Lord. End-time believers will face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hey are willing to identify publicly with the Lord, even when it is unpopular or costly.

우리는 다니엘처럼 결단을 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법이 명확하게 주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것일 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인간에게 복종할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인가? 다니엘은 비밀리에 기도할 수도 있었다. 그는 밤에 자신의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누구도 그가 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그가 평소 하던 대로 그의 창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 그의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가를 밝히는 질문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인기를 잃고 값비싼 희생을 치러야 할지라도 말이다.

- H. **Practical:** To be willing to stand for Jesus in the workplace before secular authorities.

적용: 일터안의 세속적인 권위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기꺼이 지켜나감.

- I. **Summary:** We see six examples: one about the fasted lifestyle (Dan. 1), two about taking a stand for the Lord in the public arena, knowing that it could cost us our job or life (Dan. 3 and 6) and three about speaking prophetic dreams to secular authorities (Dan. 2, 4, and 5).

요약: 우리는 6 가지 예들을 볼 수 있다: 금식의 삶에 대한 예 1 가지 (단 1 장), 우리가 직업이나 생명을 잃을 수 있음을 알고도 공개적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의 예 2 가지 (단 3, 6 장), 그리고 세속적인 권위자들에게 예언적 꿈들을 말하는 것에 대한 예 3 가지 (단 2,4, 5 장).